# "정부 신성장 전략 대응 기술개발 사업 확보를"

## 김관영 도지사 "미래형 모빌리티 등 15대 프로젝트 후속조치에 철저히"

## 국가예산 사업 사전절차 이행 등 점검 · 아태 마스터스 준비계획 수립 등도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전북도청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 동력을 마련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세부계획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을 확실히 확보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3년 미래분야를 개척할 신(新)기술, 디지털을 일상화하는 신(新)일상, 경쟁을 넘어 초격차를 확보하는 신(新)시장 3대 분야에 1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5대 프로젝트는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과학 기술, △미래의료 핵심기술, △에너지 신기술,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 △전략산업 No.1 달성, △바이오 혁신, △K-컬처 융합 관광, △한국의 디즈니 육성, △빅딜 수주 릴레이 등이다.

15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전북도 사업은 부안 수소생산기지, 새만금 스마트팜, 익산 음극재 대규모 투자,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등이다.

김 지사는 이어 "2023년 국가예산 사업도 사전절차 이행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 배정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아태마스터스대회가 D-77일, 세계잼버리가 D-158일로 두 대회가 2달, 5달 남짓 남았으므로 전략적으로 최종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상황을 꼼꼼히 챙겨 각 대회를 성공리에 치러내고, 전북발전의 기폭제로 삼자"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섬진강댐 현장을 둘러보는 김관영 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4일 섬진강댐 물문화관을 찾아 가뭄 대책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기관 간 협조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김 지사는 섬진강댐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도의회, 자동차기술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 오늘까지 도지사에 송부 예정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지난 24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 이항구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한국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에 재직 중 큰 과오가 없었고 성실히 근무한점, 자동차 산업 전문성을 살린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에 대하여는 높이 평가한 반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공모 자격요건에 명확하게 부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기부금 등 사회 봉사활동이 미비하고, 과거 위장전입 사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조직관리 경험이 부족한 면을 지적했다.

이항구 원장 후보자는 최종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많은 의견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개선할 점들을 보완해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3년 동안 마지막 직장이라는 각오로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는 각오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인권 위원장은 "전라북도는 자동차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실직하고 또 사업장을 잃는 사람들도 생기는 등 어렵고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며, 후보자께서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으로 임명이 될 경우, 전북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청문회에서는 군산 형일지티 사업 관련,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관련, 자동차 신시장 창출 대책, 도내 상용차 생산량 감소 대책, 특장차 산업 경쟁력 강화, 새만금주행시험장 관련, 장비 활용 계획, 기관장의 역할 및 조직 운영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요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에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도의회 의장 보고를 거쳐 27일까지 전북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환경청,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38억 지원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홍수기를 대비한 친수·생태공간 유지보수를 위해 전북권 7개 기초지자체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38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국가하천은 만경강, 소양천, 전주천, 동진강,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 총 7개 국가하천이며, 이에 따라 해당 국가하천이 속해 있는 7개 기초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지자체별 국고보조금 규모는 전주 5억3,300만원, 군산 1억4,900만원, 익산 2억8,300만원, 정읍 6억900만원, 김제 6억6,200만원, 완주 4억7,300만원, 부안 11억1,400만원으로 총 38억2,300만원이다.

해당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수문 등 치수(治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자전거도로·산책로 등 친수(親水)시설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박상수 전북지방환경청 하천관리팀장은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지자체의 하천 관련 재정수입을 통해 시행하여야 하나, 그 수입이 실제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만경·동진강을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생활 인프라 공간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을 비롯한 김슬지·염영선·임승식 의원은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 현장을 지난 23일 방문했다.

## "원전 인근 주민 불안 해소 주민과 적극 소통은 필수"

### 도의회 정읍 · 부안지역 의원들, 한빛원전 방문

###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등과 면담

### 한빛 6호기 시설 견학… 운영 · 안전관리 당부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김슬지·염영선·임승식 의원은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원전 현장을 지난 23일 방문했다.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지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 고창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현황, 원전 정기검사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은 사용후 핵연료 폐기물 및 온배수 처리 문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향, 고창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 전원 사퇴에 따른 대응방안 등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정기 의원은 "원전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필수적"이라면서, "고창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민간위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면담을 마치고 의원들은 계획예방정비가 끝나 22일 재가동에 돌입한 한빛 6호기의 시설을 직접 돌아보며, 한수원 관계자에게 철저한 원전의 운영과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 4 · 5 전주을 재선거

### 김호서 예비후보, 경쟁 후보에 합동 공개토론 공문 발송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김호서 예비후보(무소속)가 출마를 선언한 모든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합동정책 공개토론회 개최'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김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의 공백으로 3년간 방치된 전주을 선거구를 위해서라도 예비후보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주에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사업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깨끗하고 활발한 선거 환경이 펼쳐지고 예비후보 간에 인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도덕성 검증과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도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김 예비후보는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는 시민에게 후보별 공약과 정책, 그리고 도덕성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민주적 가치 확보를 통한 의미 있는 선거가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호서 예비후보는 "선거법상 토론회가 불가능하면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후보 간 종합적인 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후보 간에 장소와 날짜를 정해 정책 토론회가 꼭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을 지역구는 전북도의회 의장 출신인 김호서 예비후보를 비롯해 임정엽 전 완주군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도당위원장)과 진보당 강성희 대출금리인하운동 본부장, 무소속 김광종 전 서울시장 후보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강동화 도의원, 전주 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강동화 도의원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동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8)이 지난 24일 진행된 2023년 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강동화 도의원이 과거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아이들이 기르기 행복한 전주시 만들기에 앞장서며 보육발전에 기여해왔고, 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 복리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재훈 기자

##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10건 가결

###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 등도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지난 24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김승범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일 의원과 이도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 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 등 9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송기순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어, 최재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과 서향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잊혀진 영토, 제7광구의 영토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산회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전북 토종종자 보존 · 육성 활동 교류 · 정책 세미나

전북 토종채종포 운영협의회(전주·익산·김제)는 지난 24일 전북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전북 토종종자 보존·육성을 위한 활동 교류회 및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운영협의회 회원, 토종농작물 재배 실천 조직, 관심있는 도민과 공무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세미나는 전라북도에서 토종 종자를 보존하고 토종 농작물 재배를 실천하는 조직 주체 간의 교류와 전라북도 토종 농작물 보존·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종을 농업의 미래가치로 여기고 지키고 있는 실천조직의 네트워크 장을 마련한 계기가 되어 반갑고, 토종종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전통문화의 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전북민의 토종 보존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최형열 도의원, 서부시장 활성화 간담회 개최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부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임원 및 효자1동 각 자생단체 회원, 전북도 및 전주시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해 약 50명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최형열 의원은 "서부시장은 동학농민운동의 길목이 되었던 역사적인 곳이자 전주시 내에서 유일하게 정식 허가를 통해 시작돼 약 50년간 서민의 삶이 깃든 문화유적지라며 이런 서부시장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합동점검단과 서부시장 일대의 현장점검을 마친 최 의원은 이용객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보행자 중심도로 및 주차장 지붕 개량과 전신주 지중화·아케이트 사업이 시급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은 도 및 시 관계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형열 의원은 "정부 및 시도의 전통시장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고 간담회 및 현장점검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민생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완주군의회 임시회 폐회… 20건 안건 처리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4일 완주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기간에는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16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특히,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의원들은 주요업무계획에 따라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획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정해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과 정책의 중심에는 주민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완주 수소충전소 운영 활성화, 기업혁신센터 구축, 보훈수당 인상 등의 내용으로 이경애, 심부건, 김재천 의원이 각각 5분발언에 나섰다.

서남용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완주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제275회 임시를 갖고,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완주=이중복 기자